

신장(新疆) 위구르자치구 지역의 불탑형식

- 『大唐西域記』의 기록과 현존 유구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Stupas in Xinjiang Uyghur Area

- Focused on Da Tang Xi-Yu-Ji(大唐西域記) and Stupa Remains -

천 득 엄

Cheon, Deuk-Youm

(전남대학교 명예교수, 한국학호남진흥원장)

정 지 윤*

Jung, Ji-Youn

(국립문화재연구원 연구원)

신 규 나

Shin, Gyu-Na

(제주시립미술관 학예사)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process of the introduction of stupa, which has originated in India, to the Xinjiang Uyghur region and the features of the stupas in the Xinjiang Uyghur region in detail. This study examines the layout of the buildings in temple compounds and the types, structural elements, and construction methods of the stupas in the Xinjiang Uyghur region in particular by looking into the content of the Da Tang Xi Yu Ji and remaining stupas, which provide examples of stupas at the time. This study finds that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dry deserts, stupas in Xinjiang Uyghur region, where assimilation between Eastern and Western cultures is seen, were mostly made by pressing clay into a mold and had no interior spaces. Also, construction materials and techniques had been developed and improved in a way that enabled stupas to combat the challenging desert conditions. However, the stupas in this region differed significantly from the wooden tower-like stupas discovered in central China(zhongyuan 中原). The shape of the dome of most stupas in Xinjiang Uyghur region was chosen under the influence of the Gandharan style. Some of the stupas in the region have taken the general forms of the wooden stupas and the others have taken many forms, from cylindrical drums to towers. Also, there have been forests of stupas and stupas similar in form to chaityas and stupas of Vajrayana. Such different forms were transformed and modified through regional history and it was related to the peoples and cultures that produced and used stupas. Stupas evolved into distinct forms in Xinjiang Uyghur region in this way.

주제어 : 신장위구르자치구지역 불탑, 현장(玄奘), 대당서역기, 인도초기불탑, 7세기 중국불탑

Keywords : Xinjiang Uyghur Area Stupa, Xuanzang(玄奘), Da Tang Xi-Yu-Ji(大唐西域記), Indian Stupa, 7th-century Chinese pagoda

1. 불탑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 Corresponding Author : jeueney@gmail.com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8S1A5A2A01028850), (NRF-2018R1D1A1B07043033)

아울러 본 논문은 한국건축역사학회 2018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에서 발표한 「중국 新疆地域의 불탑형식」이라는 제목의 완성도가 부족한 글을 보완하여 학술논문으로 다시 작성한 것임을 밝힌다.

불탑(Stupa)은¹⁾ 종교적 가치와 염원을 지닌 대상으로 부처의 존엄성을 표현하는 조형물임과 동시에 당대의 역사, 사회, 문화적 의미를 함유하고 있는 예술작품이다. 따라서 불탑연구를 통하여 당시의 시대상과 예술적 조형성을 파악할 수 있으며 종교적 염원을 이해할

1) 불탑관련 용어는 본질적으로 인도의 Stupa에서 기인하나, 지역별·유형별 특징에 의해 각각의 명칭을 달리한다. 즉 Stupa를 비롯하여 Pagoda, Dagoba, Zedi, Pato, Prang 등 다양하다.

수 있다.

불탑이란 불교가 전래된 곳은 어디든지 지역의 환경과 문화에 적응한 모습으로 남아 있다. 인도에서는 부처가 열반에 들자 그의 신체를 화장하고 수습된 사리를 봉안하여 이를 스투파라 하였는데 반구형(半球形)에 가까운 복발형(覆鉢形) 분묘형태로 만들어졌다. 따라서 불탑이란 분묘의 기능을 갖는 건축이지만 붓다를 상징하며 최고의 권위를 지닌 존엄한 조형물이다. 또한 불탑은 내재적이며 정신적 가치로서 종교적 열망을 지니며, 불탑의 형태 및 시각적 아름다움을 통하여 교의적 의미를 강하게 나타낸다. 결국 불탑은 인문학적인 역사, 사회, 문화적 인식과 더불어 예술적이며 건축학적인 개념을 가지고 이해해야 되는 대상이다.

본 연구는 인도에서 발생한 여러 불교조형물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불탑에 대하여 고찰함으로써 불교문화권의 보편적 인식을 공유하고 그 가치를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인도에서 비롯된 불교문화가 아시아 지역으로 전이되는 과정을 고찰하는 것은 정치적 경계인 국가와 민족을 넘어 문화적 공통성이나 특수성을 찾는 의미 있는 과업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불탑은 구성 재료가 석재나 벽돌(흙벽돌)로 되어 있고 대부분 원래 자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기념비성이나 장소성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즉 오랜 세월이 경과하여 다소 파손된 상태를 고려한다 해도 가장 확실한 논거가 되고 있다. 물론 현재 남아 있는 신장지역 불탑의 건립 연기(緣起)에 대해서는 분명히 밝히는 것은 어렵겠지만, 천축순례기에 나타난 내용을 중심으로 이를 살피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신장위구르지역에 건립된 불탑의 형태, 변모양상, 지역적 특성을 문헌기록을 통해 보완분석하여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기왕의 연구

2-1.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의의

본 연구에서 인도에서 발생한 불교미술, 특히 불탑이 주변 국가로 어떻게 전래 되었고 그 나라의 특색에 맞추어 어떤 모습으로 변화하는가 하는 양상을 탐색하고자 하였으나 현존 유구가 적어 다소 한정적이다. 따라서, 여러 불교미술품 중에서 정수인 불탑의 발전사적 고찰로써, 인도 복발형 스투파에서 출발하여 주변국가로 전래와 변모양상을 고찰했다. 이러한 내용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간다라와 신장 위구르자치구(이

하 신장), 스리랑카, 미얀마, 태국 스투파의 전래과정과 형식, 그리고 지역적 특징과 유형을 고찰하는 지속적인 연구의 일환으로 불탑이 현지 문화와 사회상에 적용되어 가는 양상을 밝히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지리적으로 인도와 중국의 중간적 위치인 '신장지역의 불탑형식'을 고찰하고자 한다. 그러나 신장지역의 현존하는 불탑 유구가 많지 않고, 현존 유구도 흙벽돌로 이루어져, 대부분 그 흔적만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정적인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현장의 『대당서역기』에서 기술되어 있는 불탑형식을 파악하고, 다시 신장지역을 직접 조사한 내용을 중심으로 고찰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서역의 불교문화에 대해서는 구법승들의 여러 순례기 중에서도 현장의 『대당서역기』가 가장 자세히 불탑 관련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그에 따라 『대당서역기』에 기록된 신장위구르자치구의 불탑유적을 중심으로 한정하여 고찰하였고,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현장 답사를 진행하였다. 『대당서역기』에는 서역 36국을 포함하여 여러 소국들에 대하여 다양한 내용이 언급되고 있을 뿐 아니라 불탑에 대해서도 서술되어 있다. 그 불탑의 실체를 파악하기에는 구체적이지 않지만 연구 대상과 내용을 위한 준거가 되는 것은 분명하다.

본 연구는 인도불탑에 관한 전래와 변모양상을 연구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신장지역의 자연환경과 건조물의 유기적 관계, 지역인들의 조형적인 기호와 재료의 선택에 기인한 불탑의 종류와 조형적 특성, 건축기술 등을 주로 고찰하고자 했다.

2-2. 아시아지역 불탑에 대한 기왕의 연구

신장지역에 한정된 불탑형식 연구는 아직 없다. 오히려 중앙아시아 탐험가이면서 유적 약탈자라고 칭해지는 자들에 의해서 발굴, 조사되고 단편적으로 소개되었을 뿐이다.²⁾

신장은 중앙아시아의 한 부분에 해당하고, 현재의 신장위구르자치지역이라는 범위로 한정 지을 수 있다. 따라서 기왕의 연구고찰은 아시아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우선하고 나서 중앙아시아 및 신장지역에 한정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인도 초기 스투파에 대한 연구는 19세기 서양학자들에 의해 시작되어 근세기 일본학자들에 의해 지속되어

2) 그들은 스웨덴의 스펠 헤딘, 영국의 오렐 스타인, 독일의 폰 르콕, 프랑스의 폴 펠리오, 미국의 랭던 워너, 일본의 오타니 등이다. 피터 홉커크, 김영종 옮김, 『실크로드의 악마들』, 사계절, 2000.

왔다. 이러한 경향으로 기왕의 연구들이 서양서적의 번역이나 일본학자에 의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인도 스투파를 비롯한 스리랑카와 네팔의 스투파 연구 초기에는 J. Fergusson, P. Brown 등에 의해 고찰되면서 본격화 되었다. 이후 Bell, A.M. Hocart, Parker, Smither, Beylie, T.W. Bergess, A. Snodgrass, A.K. Coomaraswamy 등에 의해 고고학적인 발굴과 함께 연구가 진행되었다. 특히 벨과 스미서, 호카트는 스리랑카 스투파의 발굴과 연구를 통해 현존하는 스투파와 고대 스투파의 특징과 양상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이후 스리랑카 학자인 Parānavitana는 고고학적 사료와 역사 문헌의 검토를 토대로 스리랑카 스투파의 기초적인 유형에 대해 분류·분석하였다.³⁾

한편 동남아시아지역의 불탑에 대한 연구업적은 아주 드물다. 천득염, 염승훈은 미얀마의 불탑을 소개하고 연구하였으며,⁴⁾ 김소영에 의하여 태국의 불교사원과 불탑에 대한 연구가 형식분류 방법으로 이루어졌다.⁵⁾

한국에서 인도미술사와 간다라미술 전반을 종합적으로 소개한 학자는 이주형이다.⁶⁾ 김성우는 인도의 스투파 양식이 극동지역에 적용되는 양상과 변화과정에 대해 고찰하였고⁷⁾, 이희봉은 인도 스투파 형식의 시원적 성격과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불교석굴사원의 형태와 전개양상, 석굴사원 내 스투파양식의 변화과정을 연구하였다.⁸⁾ 천득염은 인도 시원불탑에 내재되어 있는 의미 고찰과 간다라지방의 스투파양식을 양식별, 용도별로 분류하였다.⁹⁾ 박경식은 중국의 벽돌형 불탑에 대하여 한국의 석탑과 비교하여 고찰하였고¹⁰⁾ 정영호 등은 ‘중원요탑(中國遼塔)’에 대한 상세한 연구서를 출간하였다.¹¹⁾ 한편 박순관은 동남아시아 종교건

축의 지역화 양상 연구를 수행하였으며¹²⁾, 노장서는 태국의 왕도건축 연구를 통하여 불교건축을 각 국가별로 분류하여 종교와 건축의 관계를 유형별로 정리하였다.¹³⁾

일본인 유유카 나카무라 등은 중앙아시아지역의 불탑을 조사하고 이들의 구성요소들을 중심으로 상대적 비교를 통하여 특성을 고찰하였다.¹⁴⁾ 특히 신장지역의 불탑은 호탄의 라와크불탑을 비롯하여 가오창과 자오허고성의 불탑, 그리고 미란의 불탑을 상세히 조사, 고찰하였다. 전체적인 형태와 건축적 공간 구성요소를 분석하여 형식을 구별한 연구로 돋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기왕의 연구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현장조사를 통하여 분석한 결과를 새롭게 제시하였다. 아울러 현장의 『대당서역기』를 통해 확인되는 사례와 교차하여 고찰한 내용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3. 현장의 신장지역 순례길

오랜 세월 불교의 성쇠와 더불어 불교 발생지 인도는 동아시아 각국의 불교인들에게 염원과 순례의 대상이었다. 불교가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여러 나라에 전래되고 정착되어 발전하는 과정에서 불교의 교리를 탐구하고 수행함과 불교유적을 찾아 참배하는 일은 가장 존귀한 종교의식이었다. 따라서 자기 나라에 충분하지 않은 불교 경전을 구하고 부처의 흔적을 찾아 참배하러 가는 인도로의 순례길은 그 자체가 성스러운 수행이었고 목숨을 건 고행이었다.

기원후 3세기경 주사행(朱士行), 불여단(不如壇), 법익(法益), 축법호(竺法護)로부터 시작한 중국인들의 인도 구법 왕래는 이름이 알려진 사람만 해도 165인에 달한다. 또한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이 695인이니 이들을 합산하면 모두 860인에 이른다.¹⁵⁾ 이들 중에

3) S. Parānavitana, *The Stupa in Ceylon*, 1964, 30쪽
 4) 천득염, 염승훈, 「미얀마불탑의 기원과 형식유래와 관한 고찰」, *건축역사연구* Vol. 27 No.2, 2018.
 천득염 외 3인, *미얀마의 역사문화와 불탑*, 전남대학교출판부, 2020
 5) 김소영, 「태국 수코타이왕조 불교사원의 구성형식고찰」,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7.
 6) 이주형, 『인도의 불교미술』, 한국국제교류재단, 2006.
 7) 김성우, 「극동지역의 불탑형의 시원」, *대한건축학논문집 계획계* 20권 4호, 대한건축학회, 2004.04.
 8) 이희봉, 「탑의 원조 인도 스투파의 형태 해석」, *건축역사연구* 제 18권 6호, 건축역사학회, 2009.12.
 「인도 불교석굴사원의 시원과 전개」, *건축역사연구* 제17권 4호, 건축역사학회, 2008.08.
 9) 천득염, 『인도 불탑의 의미와 형식』, 심미안, 2013.
 10) 박경식, 『한국의 석탑』, 학연문화사, 2008.

11) 정영호 외3인, 『中國遼塔』, 학연문화사, 2019.
 12) 박순관, 「동남아시아 종교건축의 지역화 양상 연구」, *아시아연구* 제13권 제1호, 한국아시아학회, 2010.03.
 13) 노장서, 「태국의 왕도건축 연구 - 방콕을 중심으로」, *한국태국학회논총* 제16권 제1호, 한국태국학회, 2009.
 14) Yuuka Nakamura, Shigeyuki Okazaki, 「The Spatial Composition of Buddhist Temples in Central Asia, Part 1: The Transformation of Stupas」, *Intercultural Understanding*, 2016, volume 6, pages 31-43.
 15) 광치차오(梁啟超)의 『西行求法古德表』에는 唐代까지의 求法人들을 수록하고 있다. 이 내용은 「이주형 외, 동아시아 구법승과 인도의 불교유적 - 인도로 떠난 순례자들의 발자취를 따라, 사회평론,



그림 2. 신장위구르자치구와 주변국가(유홍준, 『나의 문화유산답사기:중국편3 실�크로드의 오아시스 도시』, 2020, 8p에서 지도를 인용하여 지명을 재편집, 괄호안의 지명은 <대당서역기>에 기록된 나라를 칭함)

한때 중앙아시아를 ‘西투르키스탄’이라 하고 신장을 ‘東투르키스탄’이라고 불렀다. 이곳이 마지막으로 중국 영토로 편입된 것은 청나라 때이고 이전에는 이 땅의 원주민적인 월지(月氏), 흉노, 돌궐(투르크), 강(羌), 위구르, 탕구트(西夏) 등 여러 유목민 왕국이 중원의 역대 국가와 대결했다. 이들은 목축생활을 하는 유목국가였고, 중원을 중심으로 한 고대 중국의 국가들은 농경생활에 기반을 둔 정주국가였기 때문에 사회문화적 성격이 다르다. 따라서 성격이 다른 먼 서쪽 변방 소국들이 자리한 지방, 즉 서역이라 생각하였다. 현재 신장은 근대 이후 다수의 한족인들이 이주하여 지역의 정체성이 얼어지고 있는 다민족 권역이 되었다.

특히 서역(西域)이라는 명칭은 한나라 때부터 등장하였는데, 36개의 크고 작은 나라들로 이루어져 있었고²²⁾ 파미르고원의 동쪽 타클라마칸사막의 주변 지역을 의미하였으며 신장이 그 중심이었다. 그러나 이는 협의의 서역이고 광의의 서역은 중국의 서쪽 관문인 옥문관과 양관을 넘어선 광대한 지역을 가르킨다. 주장

勒)이 튀르크-튀르크, 혹은 투르크라고 하며 오늘날의 터키로 이어진다고 하는데 분명하지 않다. 돌궐(突厥)은 투르크의 음을 따서 한자화된 말이다. 돌궐은 처음에는 鐵勒(에니세이강 상류, 바이칼호 지방에 살았던 투르크종족)의 한 부족이었고 알타이산맥 방면에서 몽골지방의 고대 유목민족인 유연(柔然)에 소속되어 있었다.

22) 후한의 반고가 쓴 『서역전』에는 53개국이 소개되었고, 漢書 기록에 따르면 서역이라 함은 타림분지에 산재해 있던 오아시스도시 국가들을 지칭하는 말로 크고 작은 36개의 나라가 있었다고 한다.

에 따라서는 이란은 물론이고 그 밖의 유럽과 러시아 까지도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²³⁾

4-2. 신장의 불교문화 전래

신장은 선사시대부터 역사시대에 이르기까지 실�크로드의 요충지로서의 역할을 하였고 불교를 비롯하여 이슬람 등 타종교가 전래된 길이기도 한다. 따라서 수많은 불교순례자들도 자연스럽게 이 길을 통하여 인도에 까지 다녀왔다. 특히 신장은 불교문화 전래에 있어서 인도와 중앙아시아 그리고 중국으로의 접점이자 교차 지역이다.

기원전 2세기경부터 시작된 타림분지 즉 서역의 쟁패를 둘러싼 흉노와 한(漢)이 첨예하게 대립했지만, 후한대(25년~220년)에 접어들며 중국의 중심지역인 중원의 서역 경영에 대한 의욕이 저하되면서 교류도 줄어들었다. 전한대(기원전 202년~기원후 8년)와 같이 지속적인 서역 진출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흉노 역시 내분에 의한 세력 약화로 타림분지지역에 대한 영향력이 감소되었다. 그러자, 서역의 오아시스 소국가들은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독자적인 길을 걷게 되며, 서역남도 주변으로 불교문화가 자연스럽게 유입되어 유행하게 된 것도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비롯되었다.

서역남도 부근의 오아시스 도시에 전래된 초기불교

23) 정승석, 『간추린 불교상식 100문 100답』, 민족사, 1999, 256쪽

는 불탑을 중심으로 한 사원건축이 유행하였으나, 점차 불상숭배를 위한 사원건축으로 바뀌며 각지에 많은 불교 유산을 남기게 된다. 기원전 3-2세기경 인도에서 간다라, 서투르키스탄 지역에 전해진 불교는 소승계에 속한 것이었다. 반면, 기원 전후에 성립한 대승불교는 붓다의 유물을 모시는 불탑만을 예배의 대상으로 삼았다. 서역 남도 최대의 도시 호탄 근교의 라와크사원을 비롯하여 엔데레, 니야(尼雅), 미란(米蘭), 누란(樓蘭) 등지의 불탑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 불탑은 4면, 혹은 1면에 계단을 설치한 정방형 기단 위에 탑신이 길고 끝이 둥근, 마치 포탄과 같은 형태로, 이미 간다라 지역에서 정형화된 양식을 따른 것이다. 이러한 양식은 서투르키스탄의 테르메즈지역을 비롯하여 서역남도의 여러 오아시스지역에서 서역 특유의 사원건축 양식으로 정착되어 갔다.²⁴⁾

이후 3세기 말경 쿠산인들이 중앙아시아에서 누란이나 미란(鄯善國) 등으로 이주하며 간다라 불교와 예술이 유입되었다. 그들은 원주민과 결합해 절과 불탑을 세웠으며 불상을 목각하고 채색벽화를 그리며 타향의 정취가 있는 미란예술을 창조하였다. 인도의 불교와 예술은 실크로드의 남쪽길을 따라 신장지역으로 전해졌고 타림분지 남쪽 끝에 위치한 허토펜(和田)과 누란에서 발전하였다. 특히 이 지방의 고유문화와 결합하여 특유의 불교예술을 형성한 동시에 중원 등 다른 지역으로 전파하는 중계지가 되기도 하였다.²⁵⁾

이처럼 불교가 전해진 후 왕족들이 불교에 귀의하게 됨에 따라 사회전반에 퍼졌고 나아가 통치사상이 되었다. 고승이 모이고 경전이 물렸으며 또한 불교경전의 번역과 연구 사업이 번창하고 그와 더불어 불교예술도 번성하게 되었다. 401년, 동진(東晉)의 고승 법현은 이곳에서 ‘각자의 집 문 앞에 모두 불탑을 세워’ 불탑이 즐비한 모습과 누각에 글 및 모양을 새겨 투각하고 금과 은으로 위를 덮거나 많은 보석을 박아 놓은 모습을 보았다고 하였다. 또한 644년 당나라의 현장이 이곳에 다다랐을 때는 국왕과 승속(僧俗)들이 불교악을 연주하며 향화를 들고 맞이하였다.

현재, 실크로드 남로와 북로의 도시는 시대를 걸쳐 번성하고 또 소멸하였다. 그래서 사막에서 다시 발견된 폐허는 역사유적으로서 현대인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매혹적인 고대 전설로 남아 있다. 누란과 미란, 니야

24) 민병훈, 『실크로드와 동서문화 교류』, 국립중앙박물관, 실크로드와 둔황, 2010, 214~241쪽

25) 민병훈, 위의 참고도서, 214~241쪽

등이 그런 유적지가 된 것이다.²⁶⁾

5. 『대당서역기』에 나타난 인도의 대표적인 불탑형식

5-1. 복발형식 불탑

『대당서역기』 12권 중 6권과 7권은 중인도와 북인도에 해당하는 구역으로 각 54개의 탑에 대한 언급이 있다. 『대당서역기』에서 나타난 불탑의 형식은 구체적으로 설명되지는 않았지만 인도불탑의 초기형식이라고 할 수 있는 기단부와 복발, 그리고 산(傘)을 세운 모습이었음을 짐작하는 표현들이 여러 곳에서 보인다. 즉, 7세기경 인도에서 조성된 불탑의 전형형식이 결국 산치탑처럼 복발형 탑과 같은 모습이었음을 알 수 있다. 봉안물은 머리카락이나 손톱 등 부처의 신체를 모셨고, 곁웃으로서 방형 기단과 같은 모습을 만들었다. 그리고 반구형(半球形)의 바리때를 얹어 복발을 만든 다음 그 위에 지팡이를 세워 산간(傘竿), 혹은 상륜 모습을 이루었다. 크기는 석 丈(30척)이나 두 丈(20척) 정도였다.

5-2. 목조누각식 불탑

『대당서역기』 제8권 마가다국(마게타국, 摩揭陀國)²⁷⁾에서의 기록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사원에 있는 정사 세 채의 지붕 위에는 윤상(輪相)을 안치하고 네 모퉁이에 방울을 달아 놓았다. 아래에는 기단 여러 층을 쌓고 난간을 둘러놓은 복도가 있다. 부처님 입상, 타라보살상, 관자재보살상을 모신 정사는 문, 창, 서까래, 들보, 담장, 계단 장식에 황금을 써 아름답고 신비하며 위엄이 있다. 부처, 타라보살, 관자재보살의 보살핌은 사람이 알지 못하는 데까지 미친다. 정사마다 사리가 한 말씩 들어 있는데 가끔 이상한 빛이 난다.>

이상의 내용으로 보아 목조건축의 구성요소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명기되어 있어 목조누각식탑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신장지역의 불탑들이 대부분 흙벽돌을

26) 이들 이외에도 수많은 유적이 있다. 운태옥은 사막 일주를 하려면 우루무치에서 출발하는 길이 좋다고 한다. 둔황을 포함해서 타클라마칸사막을 일주하려면 크게 이동하는 거리만 6,000km가량으로 20~30일이 소요되는 길이다. 우루무치-투루판-하미(哈密)-둔황-아얼진산-뤄창(若羌)-아커싸이(阿克塞) 카자흐족 자치현-망아이(茫崖)-홍류거우(紅柳溝)-뤄창 누란막물관-체모(且末)-타중(塔中)-민펑(民豐, 니야)-허토펜-예청(叶城, 혹은 葉城), 사처(莎車, 야르칸트)-카스(喀什, 카슈가르)에 이른다.

27) 마게다국이란 고대 인도 16국 가운데 지금의 비하르주의 가야현과 파트나현을 중심으로 하는 갠지스강 남쪽지역에 해당한다.

조적한 양식인데 이처럼 인도지방에 목조건축이 있었던 것이 특이한 예라고 하겠다.

5-3. 적층형 증축탑(積層形 增築塔)

『대당서역기』 제2권에서 간다라국 카니슈카왕의 적층형 증축탑 건립에 관한 기록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카니슈카왕은 작은 탑을 둘러서 석탑을 세우고 자신의 공덕으로 작은 탑을 덮고 싶다고 빌었다. 그러나 석탑이 높아질수록 작은 탑도 높아져 늘 석자 정도 차이가 났다. 이렇게 계속 쌓다 보니 400자까지 높아졌다. 왕은 탑 밑 부분의 둘레가 1리 반 정도 되고, 한 층의 높이가 150자 정도 되는 5층탑을 쌓은 뒤에야 비로소 작은 탑을 덮을 수 있었다. 왕은 진심으로 기뻐하면서 그 위에 25층 높이로 금을 입힌 동반을 만들어 여래의 사리를 안에 모시고 정성껏 봉양했다. 건축물이 완성될 무렵 왕은 작은 탑이 큰 탑 기저의 한 모퉁이에 절반쯤 나와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왕은 마음이 불편해서 곧 작업을 그만두었다. 결국 탑 2층 기단의 중간쯤에 작은 탑이 반쯤 빠져나오게 되었고, 그 위에 다시 작은 탑 하나가 솟아 나왔다. 왕은 고개를 숙이고 가슴을 치며 사람의 일은 잘못되기 쉽고 신이 하는 일은 덮을 수 없다며 탄식했다. 왕은 다시 용서를 빌고 두려워하며 궁으로 돌아갔다. 그 두 탑은 아직도 그 자리에서 있고, 아픈 사람이 낫게 해 달라고 빌면 신의 보호를 받아 병이 치료된다, 라고 하였다.>

위와 같은 내용은 오늘의 인도지역 마가다국과 파키스탄지역 간다라국에서 나타난 설화적 모습으로 불탑형식을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의 서역순례 출발지와 귀환지에 해당하는 신장지역의 당시 불탑형식에 대해서는 추상적으로만 표현하고 있다. 더욱이 ‘어디에 불교사원과 불탑이 있다’ ‘왜 이런 탑을 건립하였다’라는 정도의 내용에 불과하여 불탑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고, 불탑건립의 연기(緣起)에 대한 내용으로만 형상이나 규모를 추정해 볼 수 있을 뿐이어서 아쉽다.

6. 신장지역의 불탑형식

6-1. 낮은 방형기단 위 복발형(覆鉢形) 불탑

인도와 그 주변국가에 전래된 불탑은 기본적으로 복발형 불탑이다. 이러한 내용은 『대당서역기』에서 자세히 적고 있다.

<.....여래는 자신의 머리카락과 손톱을 그들에게 주며

그것을 봉양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그는 걸옷을 벗어 반듯하게 개어서 땅에 켜켜이 놓은 다음, 승려의 공양 그릇인 바리때를 얹은 뒤 지팡이를 세웠다. 그리고 도성으로 돌아오는 길에 여래가 가르쳐 준 순서대로 불탑을 세웠다. 이것이 불자들이 세운 첫 탑이다.”-제1권 29 박갈국(縛喝國)에서>

이 때 ‘걸옷을 벗어 반듯하게 개었다’ 하였으니 낮은 방형기단으로 보이고, 또한 ‘바리때를 얹은 뒤 지팡이를 세웠다’는 구절로 보아 복발형 불탑이었으며 그 위에 간(竿)을 세웠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기단의 모습이 몇 단인지 계단이 있는지 있다면 얼마나 높은지 분명하지 않다. 다만, 이 형식은 가장 기본적인 모습으로 인도의 초기불탑형식과 유사하다. 위와 같은 형식은 신장에서 아직 확인되지 않은 형식으로 구분을 위하여 밝힌 내용이다.

본 연구에서 구태여 낮은 기단과 높은 기단을 구분하는 이유는 인도의 초기불탑이 낮은 원형기단을 설치한 반면, 이보다 조금 후대인 간다라와 신장지역의 불탑에서는 방형기단의 건축적 구축이 뚜렷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즉 산치나 바르후트불탑은 낮은 원형기단이지만, 간다라불탑이나 이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신장지역불탑은 방형기단이고 단이 높으며 계단이 설치되어 있다. 기단의 높고 낮음, 계단의 유무가 낮은 기단과 높은 기단이 구별되는 근거가 되는 것이다.

6-2. 서역양식 불탑(신장양식 불탑)

위와 같은 초기 인도의 복발형 불탑을 기본으로 중앙아시아를 거쳐 신장으로 전래된 불사건축은 지역적인 특이성을 나타낸다. 특히 신장지역의 불탑은 간다라지역 영향을 강하게 받아 재료와 형식이 다소 변모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서역양식불탑(혹은 신장양식 불탑)이라고 명명하였다.

우선 신장 불탑은 재료 구득이 용이한 점토벽돌을 주로 사용하였다. 인도와 간다라불탑이 소성벽돌을 주로 사용하였으나 신장불탑, 서역불탑은 대부분 점토벽돌을 사용하였다. 또한, 간다라 불탑형식에 가까운 넓은 방형의 높은 기단 위에 원통형 탑신(Drum)을 놓고 그 위에 복발이 올라가는 형식을 이루고 있다. 대표적으로 수바스(蘇巴什)불사유지의 서탑(그림3)과 동탑(그림3(그림4), 모르불탑(莫爾寺佛塔, 그림5), 니아(尼雅, 누란)불탑 등 여러 곳에서 나타나는 형식이다. 이들 불탑은 모두 아주 발달한 고단(高壇) 위에 드럼과 복발이

올라가는 형식을 하고 있다. 계단은 정면 한곳에 두거나 4면에 두는 경우, 혹은 계단이 없는 형식 등으로 다양하다. 계단이 네 방향에 있는 경우는 아래의 십자형 평면 탑과 유사한 형식이 된다.



그림 3. 수바스(蘇巴什)佛寺 서탑 (필자사진)

수바스불사유지(蘇巴什佛寺遺址)는 쿠차에서 23km 가량 떨어진 곳에 있다. 남북조시대에서 당나라 시대까지(4-10세기 사이) 이루어진 사찰로서, 구마라주 및 현장과 관련이 있는 사원이다. 당나라의 안서도후부가 구차로 이설된 후 고승들이 운집하였고 불사가 흥하였다. 당나라 후반에 쇠락을 거듭하여 14세기경에 사라졌다.



그림 4. 수바스(蘇巴什)佛寺 동탑 (사원 안내소 사진)

불사는 동쪽 사원과 서쪽 사원으로 나뉘며 통창강(銅廠河)의 동쪽 강변과 서쪽 강변에 서로 마주 보고 있다. 총면적은 약 18만㎡이다. 동쪽 사원은 산을 등지고 건축했는데 현재는 무너졌다. 사원에는 가옥과 탑 유적이 있으며, 모든 건물은 흙벽돌로 건축하였고, 벽이 높은 곳은 10미터 이상이며, 이층 이상의 건물도 있었다. 서쪽 사원은 암벽에 가까운데 낮은 담이 있고 정사각형이며 둘레는 약 318m이다. 또한 흙벽돌로 건조하여 잔존 높이가 10m 이상이다. 유적지의 북쪽 동굴 벽에는 구자(龜茲, 쿠차)문자와 불교 인물상이 새겨져 있다. 그리고 각종 동전과 동기(銅器), 철기, 목기, 벽화, 니소불상(泥塑佛像), 춤추는 형상이 그려진 사리함, 목간 및 종이 등이 발굴되었다.²⁸⁾



그림 5. 모르불탑(莫爾寺佛塔, 필자사진)

모르불사유지(莫爾佛寺遺址)는 중국 최서부 지역인 소늑국(疏勒國, 현 카슈가르) 부근의 사찰 유적지로 동한시기인 3세기경에 건립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서 모르(莫爾)는 막열

둔(莫熱墩) 혹은 막랍제목(莫拉提木)으로 번역되기도 하는데, 위구르어로는 연도(煙道)와 굴뚝을 뜻한다. 이 명칭이 있는 탑 2기는 현지인들이 고대의 봉수대로 여겨왔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이 불탑은 동한 시기인 3세기경에 건립되어 중국에서 제일 오래된 니토건축(泥土建築)으로 추정되며, 역사적이며 기술적인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²⁹⁾

당시 이곳에 불사가 왕성하게 건립된 것은 불교가 소릉국에 전래되어 발전을 이룬 시기로, 주변 구자국의 고승 구마라지바가 355년 모친을 따라 불발(佛鉢)에 경배하고 법문을 배우기 시작하였던 시기이다. 그 후 644년 인도에서 돌아오던 현장도 소릉국 주변에 가람이 수백, 승려와 신도가 만 명이 넘는다 하였으니 당시의 불교문화가 아주 번성했음을 짐작하게 한다.

모르불사유지(莫爾佛寺遺址)에는 현재 두 개의 불탑이 남아 있고 동남부에는 승방유적이 한 곳 있다. 비탈 아래의 모래밭에는 고대 카레즈³⁰⁾들이 있으며 약 1km 정도 늘어서 당시 사찰 승려들의 수원으로 쓰여졌다. 사찰터의 아래층에는 목재 한 단락이 있는데 탄화된 것으로 보아 이 사찰은 화재로 소실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부근에서 많은 석고불상의 잔편도 출토되었다. 그중에 불상 한 조각은 얼굴이 매우 생생하고 예술적 수준이 높아 당시 불교예술의 발전상을 가늠해 볼 수 있다.

두 개의 불탑 중 동남쪽에 있는 불탑은 3층의 정방형 기단부 위 4층에 원통형 탑신을 두었고, 마지막 5층에는 계란 모양의 탑 정상부를 만들었는데, 이를 복발로 볼 수 있다. 기단부라고 칭할 수 있는 층단은 가로 세로 각각 12.3m, 높이 8.4m이며 차례로 줄어들어 가는 다섯 층으로 나누어져 있다. 받침 위의 원통형 탑신은 높이가 2m이고 복발의 높이는 2.4m로, 불탑의 전체 높이는 12.8m이다. 탑신은 밀짚과 황토를 섞어 네모난 모양과 사다리모양으로 제작된 흙벽돌을 쌓아 만들었다. 탑은 속이 이미 비어있고, 위쪽으로는 오르고 내린 흔적이 보이며, 꼭대기에 둥근 구멍이 있다.

이 탑은 불교건축물 중 이른바 ‘관탑파(串塔波)’로 사리를 안치하고 소장하는 곳이다. 당시 불교가 창성했던 소릉국(疏勒國)³¹⁾에는 석가모니가 사용하던 ‘불욕침

28) 范霄鵬, 『新疆古建築』, 中國建築工業出版社, 2015. 79쪽

29) 范霄鵬, 위의 책, 80쪽

30) 카레즈(karez). 중국 신장(新疆) 일대의 관개수로. 산비탈에서부터 말까지 일정한 간격으로 우물을 파고, 다시 우물 밑을 서로 연결하는 물길을 내어, 산 위에서 눈이 녹아 내린 물과 지하수를 끌어들이 관개에 이용함.

31) 소릉국은 현재 카슈가르(喀什)이다.

28) 范霄鵬, 『新疆古建築』, 中國建築工業出版社, 2015. 79쪽

31) 소릉국은 현재 카슈가르(喀什)이다.

대, ‘불발(佛鉢)’ 등의 유물이 소장되어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 불승 도안(道安), 지맹(智猛), 구마라지바 등이 소릉국에 와서 정례하고 절한 바 있다.

서북쪽에 있는 다른 불탑은 마치 거꾸로 서 있는 대투(大門)³²⁾처럼 보이는데, 밑에는 크고 위에는 작다. 밑면 가로 25m, 세로 23.6m이고 꼭대기는 가로 14.2m, 세로 12.5m이며 탑의 잔고는 7m이다. 탑신의 정면과 양쪽에 불감이 남아 있고 그 안에 예전에 조각된 작은 불상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없어졌다. 이 탑은 사원의 중심 건물로 보이는데 꼭대기에는 종고루나 불전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니아유지(尼雅遺址)는 민평현(民豐縣, 니야)에서 북방 100km 떨어진 타클라마칸사막 남쪽에 위치한다. 전체 면적이 약 60~80km² 정도로 신장고대문화유적 중에서 가장 넓다. 유지에는 주거지, 불탑, 사원, 성터, 야금, 도기, 묘, 과수원, 물도랑(水渠) 등이 발견되었다. 지반은 밀짚과 소똥과 같은 진흙 등을 발랐고 벽은 붉은 버드나무로 기본적인 모양을 만든 뒤 흙으로 쌓았고 실내에 부뚜막과 저장고 유적이 남아 있었다.

이곳은 기원전 60년경 전한 때 소국 정절국(精節國)이 있었는데 나중에는 선선국(鄯善國)의 지배를 받았다. 『대당서역기』에서 니야성은 주위가 3~4리로서 소택지의 한가운데 있으며 여행자들은 반드시 이곳을 경유하게 된다고 기술하였다. 사막 속에 묻혀 있던 니야 유적은 영국인 탐험가 스타인(Mark Aurel Stein, 1862-1943)에 의해 세상에 알려졌다.³³⁾ 그는 1901년 이후 세 차례나 이곳을 탐방해 많은 유물을 발굴했는데, 석기, 목기, 토기, 농기구, 뿔나무발과 함께 아테나상, 에로스상, 헤라클레스상 같은 그리스 신상을 그려 넣은 봉니(封泥, 진흙으로 봉한 서한)와 문서 등이 출토되었다.

출토 유물 중에서 가장 값진 것은 카로슈티(Kharosthi)문자로 씌어진 784점의 카로슈티 문서이다. 이 문서는 목간(木簡), 가죽, 종이, 비단천 등에 쓴 것인데, 내용은 왕의 명령이나 통보, 각종 계약서, 개인 서신, 명부류 등이며 작성 연대는 3~4세기로 추정된다. 이 문서에 의해 당시 오아시스로 남도 주변 여러 나라들의 실체가 밝혀지게 되었다. 니야 유적에서 출토된 각종 유물은 간다라미술을 통한 그리스, 로마문명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니아유지의 중심 불탑은 아래에 방형기단을 구축하고 그 위에 원통형 탑신을 두었다. 이 탑의 모습은 주변에 있는 누란(樓蘭, 뤼창若羌의 옛 이름), 미란(米蘭), 안디얼디얼(安迪爾), 카스(喀什)와 쿠차 수바시(庫車 蘇巴什)의 불탑과 비슷하다.



그림 6. 안디얼고성 유적 불탑

민평현(民豐縣)에는 넓은 안디얼유지(安迪爾遺址)가 있는데 그 중심에 신장형식의 불탑이 자리하고 있다. 안디얼목장 동남쪽 27km 사막에 자리하고 있다. 4개의 고성, 즉 안디얼방성(安迪爾方城), 샤양타크고성(夏羊塔克古(霍旭初, 祁小山 編著, “絲綢之路”)城)³⁴⁾, 다오쓰러커고성(道孜勒克古城), 아커카오치커러커고성(阿克考其克熱克古城)이 있고 주변에 오래된 묘, 불탑, 야금공방, 가마터 등이 조성되었다. 안디얼고성(安迪爾故城)의 현존 성벽 높이는 5.2m이고, 두께는 2.6m에 이른다. 남쪽 성벽 가운데 문을 두었는데 이중성문이다. 특히 L자형으로 옹성을 조성했다. 안디얼유지의 불탑은 잔존 높이가 약 7m이고 아래 네모난 기단을 3층으로 구축하였으며, 그 위에 원통형 탑신을 두고 맨 위에 복발을 얹었는데 흙벽돌로 쌓은 것이다.

6-3. 십자형평면 불탑

허톈(和田)지구 뤼푸현성(洛浦縣城) 서북 50km(호탄의 동북 70km)지점에 있는 라와크유지(熱瓦克佛寺遺址, Rawak Temple Ruins)에는 그 중심에 파괴가 많이 진행된 불탑이 있다. 이 역시 20세기 초 스타인에 의하여 소개되었는데, 라와크는 ‘정자 누각’이라는 뜻이고³⁵⁾ 사원의 크기는 2,250평방미터 정도이다. 사원은 정방형에 가까운 장방형이고 진흙으로 만들어졌다. 남북은 49.4m이고 동서는 45.5m이다. 외곽 담장벽의 높이는 3m, 두께는 1m이다. 사원의 남쪽 벽 중앙에는 문이 있다.³⁶⁾

이 사원의 중앙에 라와크불탑이 자리한다. 신장에 있는 십자형 탑으로서 라와크탑이 대표적인 유구이다.

34) 이 유적은 실크로드 남도에 있고 한나라 때 시작하여 당나라 때 현장의 기록에 吐火羅故國이라고 나타나지만, 11세기에 폐기되었다.

35) 유홍준,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중국편3, 창비, 357쪽

36) 范霄鵬, 『新疆古建築』, 中國建築工業出版社, 2015

32) 대두는 두공(斗拱) 또는 공포(栱包)의 한 부재로서 전통 목조건축에서 지붕을 지지하기 위해 기둥 위에 설치하는 柱頭에 해당한다.

33) 정수일, 『실크로드 사전』, 창비, 2013.



그림7. 라와크불탑 모형(熱瓦克佛寺遺址, 김상조 사진)



그림8. Rawak Vihara 평면도 (M. A. Stein 그림)



그림9. 라와크불탑(필자사진)

사방에 각각 계단이 있어 4구획되어 있다. 탑은 흙벽돌로 만들어졌고 평면은 십자형이다. 구체적으로 평면형식을 10각형이라고 하는 편이 더 옳다. 왜냐하면 4각형 평면에 계단부가 돌출하였고 모서리부분이 리넨트 평면을 이루면서 10각형이 된 것이다. 방형기단은 한 변 길이 15m, 높이 5.3m로 구축되었다. 기단 위에는 직경 9.6m인 원통형의 탑신이 있는데 현재 높이는 약 3.6m 정도이다. 원통형 탑신 위에는 복발이 올라간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현존하지 않는다. 전시관 주변의 안내 모형(그림7)에는 원통형 탑신, 즉 드럼이 다소 높게 구축되어 있다.

한편 사원의 외곽을 방형으로 돌리는 담장 내외부 측면에는 우아한 부처나 보살상이 조각되었고, 수많은 부조와 프레스코도 확인되었다. 이들은 5

세기경 남북조시대의 작품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불상의 모습과 프레스코는 간다라문화의 영향을 깊게 받은 것이라 평가되고 있다. 아직 많은 프레스코와 상이 예전의 모습대로 땅속에 있는데 아마 당나라 이후 것으로 생각된다.

라와크불탑은 인도초기의 원형기단이 방형기단으로 변하고 하나의 계단이 4개의 계단으로 증가된 형태의 십자형탑이다. 또한 방형기단 위에는 드럼(Drum, 원통)형 몸체가 있고 그 위에 복발을 덮고 소위 산간과 산개가 있는 상륜부를 중심에 세웠다. 이런 모습의 불탑은 산치와 바르후트의 인도초기불탑이 신장지역에 이르러 변화된 형식이라 생각된다. 즉, 산치와 바르후트의 인도 초기 복발형의 불탑이 간다라지역을 거쳐 1차 변화하였고, 신장지역으로 전래되면서 정착한 것이

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라와크불탑은 인도에서 유래되어 서역이라고 지칭되는 신장지역으로 전래된 서역양식불탑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인도 초기불탑이 전래된 또 다른 지역인 인도 동남부 안드라지역의 아마라바티불탑과 나가르주나콘다불탑 등은 산치불탑과 유사한 모습을 유지한 채 거대한 복발형 불탑으로 계승되었다. 기단부가 원형으로 비교적 낮게 구축되고 사방에 아야카라는 독특한 돌출부가 새롭게 생성되어 이곳 신장과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6-4. 중심주형(中心柱形) 불탑



그림10. 가오창고성 大佛寺 塔殿의 中心柱形 불탑(필자사진)

현장의 서역 순례출발지인 가오창국에는 가오창고성(古昌古城)과 자오허고성(交河古城)이 있다. 이 고성들은 과거에는 서역의 소국이었으며 현재는 신장지역에 해당한다.

두 하천이 흐르고 그 사이에 방어적 요소로 자리한 자오허고성 안에는 당대의 불교용성을 보여주는 수많은 불교사원이 있다. 그 중심인 대불전의 중앙에 거대한 중앙대탑이 자리하고 있다. 대불사 탑주 사방에는 감실이 마련되어 있다.

가오창고성의 중심 불전을 탑전(塔殿)이라고 하는데 주위를 벽으로 돌렸고 그 중앙에 자리한 거대한 방형기둥이 있는데 중심주형 불탑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 불탑의 재료는 거의 대부분 흙벽돌로 되어 있다. 건축형식은 맨 아래에 기단이 있고 위에 방형의 중심주형 불탑이 올라간다. 현재는 1층의 동측 정면에는 큰 불상이 자리하고 있었던 감실(龕室)이 있고 나머지 3면에는 3개의 감실이 조성되어있으며 안에 좌불을 모셨던 흔적이 보인다. 위에는 다시 소형 감실을 2, 3, 4층에 각각 7개씩 만들어 안에 좌불을 모셨다.

이러한 중심주 불탑형식은 중국의 중원지역이나 인도 혹은 간다라지방에서 볼 수 없는 특이한 형식이다. 구태여 비교하자면 북위시대의 석굴사원에서³⁷⁾ 찾아볼 수 있는 중심주형 불탑과 유사하다. 이는 석조기둥이나 목조건축을 자세히 조각한 형식으로 되었고 공간의 중심에 위치하여 탑전의 상부구조를 지탱하고 있다. 신장은 건조한 지역이라서 이 사원에서 지붕이 꼭 필

37) 운강석굴과 용문석굴이 대표적인 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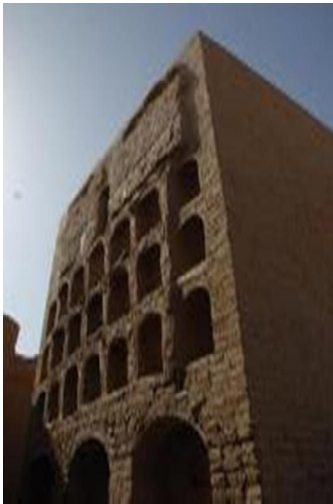


그림 11. 가오창고성 대불사 탑전의 중심주형 불탑(필자사진)

요했는지 분명하지 않다.

또한 거대한 영령사 목조불탑의 중심에 있는 중심기둥도 역시 흙으로 항토 관축하여 상부구조를 지탱하고 있는 형식으로 유사성을 갖는다. 이는 9칸 9층 규모의 대형목탑에 있어 구조적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항토 관축을 한 거대한 토축(土築) 중심주를 두고 수평부재들을 끼워

었다. 동시에 이 토축 중심기둥 역시 구조적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내부에 목조기둥을 1변에 6개씩 총합 36개의 심주로 넣어 구조적 보강을 하고 있어서 상호 비교된다.

중앙에 방형탑을 두고 주위를 벽으로 둘러싼 것은 쿠차 키질석굴 중앙에 방형탑을 갖춘 차이티야굴과 비교된다.³⁸⁾ 아울러 중인도와 간다라의 탑이 원형(圓形)을 유지하고 있음에 비하여 이 탑이 방형(方形)을 하고 있는 점은 특이한 예라고 하겠다.

6-5. 탑림형불탑(塔林形佛塔, 만다라식 불탑, 百塔)



그림 13. 자오허고성 塔林形 불탑(全民百科, <https://www.qmbk.com/jingyan/202107/188191.shtml>)

평지의 넓은 땅에 자리한 자오허고성 안에는 여러 사찰의 유지가 있다. 그중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것은 중앙탑인데, 탑전이라는 주불전의 중심이 탑형식으로 되어있다. 이외에도 자오허고성

에서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탑림(forest of Stupas)이다. 수많은 소형탑으로 이루어져 탑림이라 하는데,³⁹⁾ 자오허고성의 출입구에서 제일 안쪽에 위치한다.

이 탑림은 중국에서도 드물게 볼 수 있는 금강보좌형탑⁴⁰⁾을 중앙에 두고 그 외곽을 전자(田字) 모양으로



그림 12. 자오허고성 탑림의 중앙 금강보좌형탑(필자사진)

나누어 25기씩 전체 100기에 이르는 소형 불탑을 각 네모서리 공간에 두었다. 따라서 이를 가리켜 군집형불탑, 탑림(塔林), 백탑(百塔), 만다라식 불탑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기하학적 도상과 수많은 탑들이 하나의 균을 이루고 있어 특이한 모습이다. 주변 100기의 소형탑은 방형 기단 위에 원형 탑신이 올라가는 형식이나 결실되어 보다 구체적 인 모습은 분명하지 않다.

6-6. 탑전형불탑:대장탑(台藏塔)



그림 14. 탑전형불탑(台藏塔, 6~7세기인 필자사진)

타이칭타유지(台藏塔遺址, 대장탑유적지)는 투푸관에서 동쪽으로 약 40km, 가오창고성에서 북쪽으로 약 1km 떨어진 곳에 있다.

6~7세기인 국씨가오창(麴氏高昌)시기에 지어졌으며 그 당시에 유명한 불교 유적지였으니 가오창시기에 불교의 흥성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 14세기말에 차가타이칸국(察合台汗國)의 통치자는 가오창지역의 주민들이 이슬람교를 믿도록 강요하였으며, 그 후 대장탑이 점차 파괴되었다.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사원의 중심탑으로 짐작되는 대장탑은 내부공간이 없이 토축된 흙덩어리 형식의 거대한 불탑이다. 대장탑은 939㎡의 면적으로 잔존 높이가 약 20m이다. 이 불탑은 흙을 다져 건축한 항토건축이며 탑신은 정사각형에 가까운 입방체이다. 배치는 정남향이 아닌 약간 남서향으로 기울어졌다.⁴¹⁾ 탑의 남면과 서면은 심하게 손상되어 있고 사방에 불감(佛龕)이 있다. 불감은 깔끔하게 정렬되어 있으며 동쪽 벽에 3개의 층이 확인되는데 상6, 중7, 하8기로 되어있다. 불단 속에 불상과 불교 이야기에 관한 벽화가 보존되어 있다. 북쪽 벽은 상하 두 층으로 나뉘는데 상4, 하5기의 불감으로 되어있다. 탑 내부 서쪽 벽의 가운데 1m 높이의 위치에서 직사각 권정형(券頂形)⁴²⁾ 동굴을 파서 벽을 뚫어지게 했으며(벽두께는 13m), 동굴의 양쪽

38) 유근자, 실크로드연구사전, 국립문화재연구소, 2019, 341쪽

39) 소현숙, 실크로드연구사전, 국립문화재연구소, 2019, 374에서 이런 형식을 아육왕탑, 혹은 보협인탑이라고 하였다.

40) 呼和浩特市 五塔寺 金剛座舍利寶塔이 구체적인 예이다.

41) 范霄鹏, 『新疆古建筑』, 中國建築工業出版社, 2015, 86쪽

42) 상부가 둥근모습, 일종의 Ar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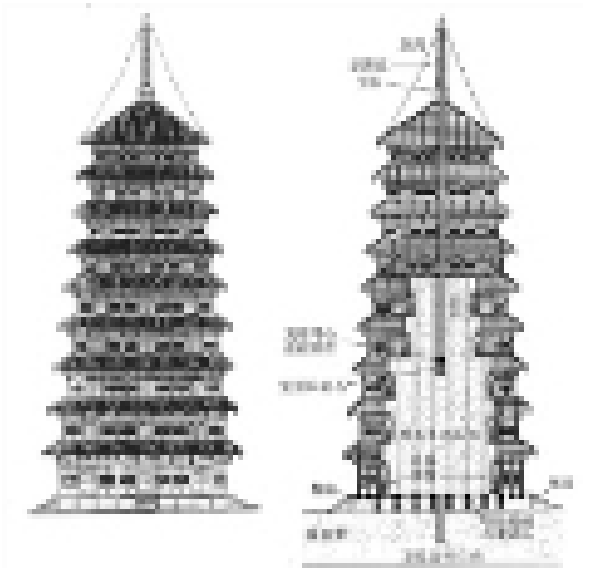


그림 15. 북위 영령사 목탑 복원도, 516년(熙平元年)

에 다시 두 개의 동굴이 있다. 탑신을 평면에서 보면 구자형(口字形)으로 되었으며, 탑기단 부분은 남북으로 약 36m, 동서로 34m, 탑벽의 두께는 8~12m이다. 탑의 내부는 비어있는데 내부 길이는 약 15m이다. 탑의 남면 가운데 부분은 넓이가 약 3m가 되는 구멍이 있다.⁴³⁾

이 대장탑이 모습 그 자체로 불감이 많은 토축제 대형불탑의 기능을 했는지 아니면 북위시대 영령사 목탑(그림15)처럼 목탑을 구축하는 중심향토주(中心尙土柱)인지 분명하지 않다. 현재 벽면에 수많은 구멍이 있어서 목조건축을 연결하는 수평의 지지목이 자리했을 수도 있다. 영령사 목탑처럼 그 외부를 목조건축이 감싸고 있을 가능성, 불탑형 불전의 가능성도 제기할 수 있다. 특히 시기적으로나 형태적으로 유사하며, 각층의 불감을 향토된 중심주 벽에 설치하고 목조건축으로 외부를 마감한 구조를 추정해 볼 수 있다.

6-7. 다각형불탑(리덴트식 불탑, 밀교식 불탑)

7세기 현장이 다녀 간 기록이 있는 가오창고성의 밖에 자리한 동남소사(東南小寺)는 외성의 동쪽 담장이 25m, 남쪽 담장이 50m에 이른다. 규모가 크지 않은 이 불탑은 현재 높이가 5.4m, 층수는 4층까지만 남아 있는데 3층의 각 방향에 불감이 하나씩 만들어져 있다. 진흙을 다지는 향토식(尙土式)으로 쌓았다. 방형기단 위에 드럼형식의 낮은 단을 놓고 그 위에 모서리부분을 모죽임(末角)하여 20각형을 이룬 리덴트식이다. 미



그림 16. 가오창고성 다각형불탑 (밀교식 불탑)(필자사진)

얀마와 태국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기단형식인데 이곳에서는 상부가 결실되어 어떤 모습이었는지 짐작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다각형(다변형) 불탑은 티벳불교의 영향 아래 만들어진 것으로 투르판지역에 몇

기 더 현존한다.⁴⁴⁾ 물론 미얀마의 불탑은 위로 올라가면서 4각이 8각으로 다시 원형으로 변하고 또한 위로 올라가면서 급격히 줄어들어 정상부에는 날카로워지나 이 불탑은 오히려 태국의 불탑처럼 옥수수 모양으로 되어있지 않았나 짐작된다.

전술한 라와크불탑의 기단부가 10각형인 것은 기단에 계단이 첨가되면서 나타난 모습이다. 이탑의 경우는 탑신의 하부가 방형에서 다각형으로 변모한 형식으로 각형과 원형의 중간적 평면형식인 것이다. 벽화나 탑의 구축방식으로 보아 이 건축들은 가오창회골(高昌回鶻) 후기인 12-13세기의 작으로 보인다.⁴⁵⁾

7. 신장지역 불탑의 구성요소

불탑의 내재적 의미는 붓다의 숭엄이다. 결국은 붓다의 신체인 사리를 모시는 곳이기 때문에 불탑이 붓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불탑은 붓다의 사망(열반), 화장(다비), 장례(봉안)의 과정을 다양한 기단형식과 원통형 탑신, 반구형 적석(봉분), 정형화된 복발, 장소적 표식인 일산(산간과 산개), 외곽 울타리(난순), 탑돌이 길(요도), 성스러운 공간의 출입(탑문) 등으로 장엄을 표현하는 요소들로 구성된다.

본고의 연구대상인 신장지역불탑을 고찰하는데 위와 같은 구성요소들을 살핌으로 그 특징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나 유감스럽게도 현존하는 신장지역 불탑에서는 구성요소 전부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인도의 초기불탑에서 변모된 간다라불탑과 신장의 불탑에는 기단부, 탑신부, 복발부에서 유사성을 찾을 수 있기에 이들의 관계 속에서 각 부분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7-1. 기단부

44) 소현숙, 실크로드연구사전, 국립문화재연구소, 2019, 343쪽

45) 홍보용 안내서의 기록에 의함.

43) 范霄鹏, 『新疆古建筑』, 中国建筑工业出版社, 2015, 그림5-1-15, 그림5-1-16.

기단은 원형, 방형, 십자형 기단, 각 모죽임 기단(리텐트식) 등으로 다양하다. 신장지역의 불탑은 높은 단으로 정방형 기단을 구축하는 경우가 많다. 높은 기단의 경우는 당연히 계단이 설치되는데 1방향, 2방향, 4방향 계단형식이 나타난다.

기단의 입면은 아무 장식도 없는 형식이 대부분이고 기둥과 기둥으로 나누어지는 벽면에 감실이 있고 그 안에 불상을 모시는 모습도 드물게 보인다. 즉 감실과 감실 사이는 기둥으로 공간을 분절하여 구획하였다. 한편 라와크 불탑의 기단에는 불상조성이 확인되지 않으나 불탑을 둘러싼 담장의 안과 밖에는 많은 소조 불상이 조성되어 있었다.

간다라지역은 건축적 요소인 필라스터 형식의 기둥으로 구축한 기단을 이루었고 신장지역은 향토하여 흙으로 된 큰 괴체를 이룬 기단의 모습이다. 물론 간다라의 불탑은 재료가 석재를 깎아서 만든 석재벽돌로 구축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좀 다르다.

7-2. 탑신부(軸部)

승엄한 기념물들은 대부분 수직적 조형형태를 보인다. 불탑이 사리장엄을 모시기 위한 건축물이라면 기단이나 탑신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따라서

복발 아래에 기단이나 축부를 보다 높게 두려고 한 의지가 발현될 것이다. 특히 간다라와 신장지역에서 이러한 모습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기단 위에 자리한 탑신부는 존귀한 존재인 사리를 더 높게 모시기 위한 구조체이다. 신장지역의 불탑은 대개 높은 기단 위에 원통형 축부(Drum모습의 탑신)를 높게 올리고 그 위에 반구형(半球形)의 복발을 얹는 형식을 취한다. 1단에서 여러 단의 원통을 중첩한 경우는 포탄형이라고 표현된다. 이러한 예는 간다라지역의 불탑형식과 유사하다.

반면, 낮은 기단 위의 탑신이 거대한 4각 기둥 모습을 하는 특이한 사례도 있다. 자오허고성의 탑전 중심주형 불탑이 그 예이다. 오히려 기둥이라 하기에 부적합할 정도로 크고 기능 또한 불상을 모셔 놓은 감실이 벽면을 가득하게 감싸고 있어 그 자체를 탑전이라고 할 수 있다.

7-3. 복발(覆鉢)

불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복발은 붓다의 사리를 모시는 가장 존귀한 공간이다. 붓다의 무덤이고 그의 현신이기 때문에 세계의 불탑에는 거의 대부분 크고 작은 구형 복발이 상부에 자리하기 마련이다. 인

표 1. 신장지역의 불탑형식

불탑형식	탑 이름	건립연대	사용재료	위치와 크기
서역양식불탑 (신장양식불탑)	수바스東西불탑	남북조인 4세기 이후	진흙벽돌, 진흙과 자갈, 짚과 나뭇가지로 다짐.	쿠차현에서 23km 가량
	모르불탑	동한(東漢)시기인 3세기경	밀짚과 황토를 섞어 만든 네모난 흙벽돌과 사다리모양 흙벽돌로 쌓음	현 카슈가르 부근. 전체 높이가 12.8m
	니아遺址 불탑	3~4세기로 추정	흙벽돌, 자갈과 흙다지기	민평현(民豐縣)에서 북방 100km 떨어진
	안디얼遺址 불탑	미상	흙벽돌	안디얼목장 동남쪽 27km, 현 높이가 약 7m
십자형평면 불탑	라와크불탑	5세기경 남북조시대	흙벽돌과 진흙마감	허텐(和田), 방형기단은 길이 15m, 높이 5.3m. 기단 위 직경 9.6m인 원통형 탑신, 현재 탑신높이 약 3.6m 정도.
중심주형 불탑	가오창고성 대불사 탑전	당대 이후로 추정	흙벽돌	가오창고성 대불사 탑전의 중심주
탑림형불탑 (만다라식 불탑, 百塔)	자오허고성 안탑림형불탑	고창국시기, 혹은 당대 이후로 추정	흙벽돌	중앙탑과 100기의 소형탑
탑전형불탑	대장탑(台藏塔)	6~7세기 국씨가오창(麴氏高昌) 시기	판축 향토	투푸판 동쪽 약 40km, 가오창고성 북쪽 약 1km
다각형 불탑 (다면형 불탑)	리텐트식 불탑, 밀교식 불탑	가오창회골(高昌回鶻) 후기인 12~13세기의 작품	판축 향토 위 진흙마감. 리텐트식 탑신	가오창고성의 밖 동남소사(東南小寺)에 위치

도의 탑이나 인도 주변 국가의 탑에는 중심 위치에 가장 중요한 의미를 지닌 거대한 복발이 자리하고, 승려들의 바루모양이거나 종모양의 형태를 하고 있다.⁴⁶⁾

이러한 형태는 고대 인도의 장례법에 따라 신체를 화장한 후 수습된 사리를 모실 때 선대의 장례법을 준용하여 복발형으로 하였다. 복발의 중심, 맨 위나 아래에 사리함을 봉안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었다.

따라서 맨 위에 복발이 올라가고 그 위에 이곳이 존귀한 분을 모시는 곳임을 알리는 깃발이 상징화되어 상륜이라는 이름으로 세워졌다. 물론 현존하는 신장지역의 불탑에는 복발까지는 보이나 소위 평두와 산간, 산개 등으로 구성된 상륜부는 사라지고 보이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7-4. 불탑의 배치형식

붓다가 세상에 있을 때 제자들에게 강론을 하였고 그들이 머무는 곳이 필요했는데 이를 정사(精舍)라고 한다. 죽림정사와 기원정사가 대표적인 예이다. 그 후 붓다가 열반하고 나서 그의 사리를 모시는 것이 불탑이었고 자연스럽게 붓다를 대체하는 승엄의 대상이 되었다. 그래서 초기불교사원에서 가장 중요한 경배의 대상은 불탑이다. 그리고 불탑과 출가제자들이 머무는 곳인 승원은 사원의 핵심시설이었다. 그 후에 불상이 나타나고 이 불상을 모시는 불전이 건립되면서 승원과 불탑, 불전이 함께 사원을 이루는 주체가 되었다. 따라서 초기 사원에서는 오직 거대한 불탑이 있고 가까이 승려들이 머무는 승원이나 기도처가 있는 것이다. 그러다가 불탑이 커지면서 주탑과 그 주변의 봉헌탑, 사당 등이 함께 자리하면서 기능을 두루 갖춘 불교사원으로 발전하게 된다.

인도의 초기불교사원은 간다라를 거쳐 중국의 서역인 신장지역으로 전래되었다. 전래초기 불교는 불상, 경전, 승려 등이 함께 전래되었고 불교가 뿌리내리는 과정에서 불탑, 사원과 승원, 장경각 등이 인도나 간다라와 유사한 형태로 건립되었다. 그 후 사원 내부에 불상이나 불화로 장엄을 갖추면서 기술자와 경전 번역자, 음악과 무용 등에 관련된 예술가들이 도래하였다. 이들은 전래지역의 정치가나 상인 등 후원으로 정착하고 활동하게 되었다.⁴⁷⁾ 이러한 기술자와 예술가들은 아무

래도 현지 장인들과 협력하여 지역인들이나 후원자들의 기호에 맞춘 새로운 형태의 불교신앙적 조형물을 제작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다양한 문화변용의 과정을 거치며 불교가 지역주민의 문화수준 향상에 기여하게 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신장지역 사원의 구체적인 모습을 살필 수 있는 현존유구는 부족하나 배치형식은 인도와 간다라지방과 유사하게 나타내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즉, 중앙에 주탑이나 탑형 불전, 불상을 안치한 정방형 대좌를 두고 그 주위를 벽으로 감싸고 있는 정방형 평면이다. 이를 ‘회자형 유심당형식(回字形 有心堂形式)’이라고 한다.⁴⁸⁾ 다만, 불교사원의 부속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선방이나 숙소 같은 것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신장의 대표적인 유적이라고 할 수 있는 가오창고성(古昌古城)의 사지는 대문, 정원, 강당(강경당), 불전(탑전), 장경루, 승방 등으로 구성된 대형사지이고 동서를 중심축으로 대칭적인 배치형식을 보인다.⁴⁹⁾

특히 대승불교가 깊이 뿌리 내렸던 니야 유적에서는 방형의 회자형(回字形) 평면을 지니는 유심당(有心堂)형식의 사원 유구가 대량으로 발굴되었다. 중앙에 불상을 안치하는 정방형의 대좌가 놓이고 그 주위를 동일한 간격으로 벽을 두른 형태의 평지사원 건축으로, 중앙 불상 주위의 벽면에는 다양한 불화가 장엄되어 있었다.

아무튼 이후 불교가 중원지역으로 세력이 확장되고 중원화되면서 소위 남북축선 위에 주요한 건물들이 들어서서 장방형 배치형식을 하게 되었다. 현재 중국의 중원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는 백마사를 비롯하여 초기 불교사원의 흔적이 잘 남아 있는데 바로 이러한 장방형 가람배치형식을 하고 있다.

7-5. 재료와 구법

신장지역은 큰 산맥과 사막, 산맥 정상에 만년설이 녹아 흘러내리면서 이루어지는 평원과 오아시스도시들이 자리 잡았고 고대부터 사람들이 정주하게 되었다. 이들은 원래 유목민족이 주를 이루었으나 이동성을 잃고 정주하면서 농경을 하는 민족으로 변하게 되었다.

척박한 사막 주변 땅에 오아시스도시들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정주하면서 성과 집락, 주거와 종교시설들이 구축되었다. 따라서 그들이 사용한 건축재료와 구법은

46) 다만 인도에서 멀리 떨어진 중국 중원지역이나 한국, 일본에 있어서는 목조건축의 맨 위에 복발이 자리하고 있다.

47) 민병훈, 『실크로드와 동서문화 교류』, 국립중앙박물관, 실크로드와 눈황, 2010, 214~241쪽

48) 이는 중국에 있어 불교 이전의 종교인 도교사원의 배치형식과 유사하다.

49) 유근자, 실크로드연구사전, 국립문화재연구소, 2019, 340쪽

표 2. 신장지역불탑의 구성요소

구성요소	구체적인 내용
기단부	원형, 방형, 십자형 기단, 모죽임 기단(리덴트식)으로 다양
탑신부 (축부)	중요한 복발을 받기 위한 하부 몸통, 대부분 원통형
복발	반구형 복발(바루형), 평두와 산간, 산개는 파악하기 어려움
평면형식과 배치	불탑을 중심에 둔 回字形 ‘有心堂形式’ 또는 동서축형 배치
재료와 구법	일건벽돌이나 항토, 흙, 진흙, 자갈, 밀짚, 나뭇가지 등을 사용하여 다짐

결국은 주변 환경에서 구득이 용이한 것들이었다. 주로 흙을 진흙처럼 물로 이기고 틀에 넣어서 말린 벽돌이 가장 많이 쓴 재료이다. 벽돌을 쓰기에 너무 큰 구조물에는 흙이나 진흙, 자갈 등을 다져서 밀도를 높이는 항토기법(夯土技法)을 주로 사용하였다. 이때 밀짚, 나무가지 등을 넣어 접착성과 내구성을 높이려는 노력도 하였다. 물론 거푸집과 같은 시설을 사용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8. 결 어

본고는 신장지역의 불탑에 대한 연구로서, 불교문화도래의 완충지역인 신장의 불탑을 살피고, 동서아시아 불교문화의 전이양상을 밝히는데 그 의미가 있다. 특히 인도 초기불탑과 간다라불탑, 그리고 신장불탑의 양식을 비교고찰 하고자 하였다. 실제적인 모습을 분명하게 밝힐 수 없는 부분은 『대당서역기』를 통한 문헌적 고찰과 현장 답사를 통하여 신장지역불탑을 조사분석하여 논거를 보충하였다.

대제국을 꿈꾸었던 7세기의 당나라는 동서양을 원활히 연결해주는 문화적 정보가 부족했다. 이때 현장의 인도 순례기는 이를 해결해주는 당시의 막중한 정보였다. 중국과 중앙아시아, 좁은 의미로서 서역이라고 하는 신장, 인도 곳곳의 지리적 정보, 특히 당시 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특징과 사회문화와 같은 정보를 기록하였다. 넓고 기나긴 지역을 순례하면서 불교유적과 불교설화적인 내용을 이동하는 경로에 따라서 적고 있다. 특히 아소카왕에 의하여 불교가 번성되고 전래된 후 600여년이 지난 당시의 인도권과 그 주변국가들의 사회현상, 불교사원의 건립양상, 불탑 조성 연기와 모습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어서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인도에서 간다라, 신장지역에 전해진 초기불교는 소승계에 속한 것이었다. 그 후 기원 전후 무렵에 성립한 대승불교는 사리를 중심으로 붓다의 유물이 모셔진 불탑만을 예배대상으로 삼았다. 『대당서역기』가 기록된 7세기경 대부분의 신장지역 소국들에는 불교가람이 많고 승려들이 수백에서 수천에 이르렀다. 타클라마칸 사막을 중심으로 아랫길인 서역남도(실크로드남로)에서는 불탑유적이 많고 이어서 윗길인 천산남로에는 평지사원과 석굴사원이 돌보인다.

『대당서역기』에는 술도과, 즉 탑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이 언급되고 있고, 나타난 불탑형식은 다양하다. 즉 탑의 위치, 설립연기, 크기, 재료, 구체적인 모습, 봉안물에 대해서까지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특히 기단과 문, 창, 서까래, 들보, 담장, 계단에 대하여도 장엄하게 하였음을 언급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보면 당시 인도불탑은 현재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크고 호화롭고 다양한 모습이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또한 『대당서역기』에는 불탑에 봉안된 성물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진신사리를 비롯하여 법신사리, 변신사리, 승려의 사리를 모시고 있다.

신장지역의 불탑은 인도의 복발형 불탑에서 유래된 것이나 지역에 따라 새로운 모습으로 변하여 정착되었다. 그리고 재료는 흙벽돌과 진흙을 이용한 항토기법으로 쌓고, 인도식 복발형탑이 주종을 이루며, 방형기단과 원형탑신이 고준한 고유한 형식을 취하고 있다. 다만 불탑이 불교사원의 중심적 위치를 점하면서 또 다른 양상으로 변모하거나 목조불탑형식을 구축하는 독창적인 경우도 있다. 낮은 기단 위 복발형 불탑, 서역양식 불탑(신장양식 불탑), 십자형평면 불탑, 중심주형(中心柱形)불탑, 탑전형불탑(台藏塔), 탑림형불탑(만다라식 불탑), 다각형불탑(리덴트식 불탑, 밀교식 불탑) 등 다양한 형식을 보인다. 이렇게 다양한 탑 형식이 나타나는 것은 넓은 영토와 다민족 국가로 구성된 신장지역만의 고유함이며 인도의 초기불탑형식이 나름 긴 전래과정을 거치면서 또 다른 형식으로 변모되고 정착된 양상이라고 할 수 있겠다.

신장지역 불탑의 기단부에서 상륜부까지의 구성요소들은 다음과 같이 분석된다. <기단>은 원형, 방형, 십자형 기단, 각 모죽임 기단(리덴트식)등으로 나누어지고 기단에는 계단이 설치된다. 기단의 벽면에 기둥인 페르시아식 필라스터가 세워지고 4면을 이 기둥에 의하여 몇 칸으로 나누어진다. 기단에 부설된 계단은 초

기에는 1방향 계단으로 출발하여 나중에는 2방향 계단, 4방향 계단으로 나타난다. 기단이 높아지면서 계단이 필요 했을 것이고 기단이 커지면서 2방향이나 4방향에 계단이 설치되었을 것이다.

<탑신(軸部)과 복발>은 높은 기단 위에 자리하며 존귀한 존재인 사리를 더 높게 모시고 존귀함을 숭엄하기 위한 방식이다. 신장지역의 불탑은 대개 높은 기단 위에 원통형 축부를 올리고 그 위에 복발을 얹는 형식을 취한다. 이 경우 원통(Drum)은 다소 높아 고준하게 보인다. 이는 1단이거나 여러 단의 원통을 중첩하기도 하였는데 간다라지역의 불탑형식과 유사하다. 인도의 탑이나 간다라, 신장의 탑에는 정상부 중심에 숭엄한 의미를 지니며 승려들의 바루모양을 한 거대한 복발이 자리한다. 반면, 기단 위의 탑신이 거대한 4각 기둥 모습을 하는 경우도 있다. 오히려 기둥이라 하기에는 부적절할 정도로 크고 기능 또한 불상을 모셔 놓은 감실이 벽면을 가득하게 감싸고 있어서 탑전(塔殿)이라고 부른다.

신장지역 사원의 구체적인 모습을 살필 수 있는 유구는 부족하나 인도와 간다라지방과 유사한 <가람배치형식>을 나타내고 있다고 여겨진다. 즉 중앙에 주탑이나 탑형 불전, 불상의 좌대를 두고 그 주위를 벽으로 감싸고 있는 정방형 형태이다. 이를 회자형 유심당이라고 한다. 이와 아울러 동서축을 중심으로 대문, 정원, 강당, 불전, 탑전, 승방으로 구성된 예도 있다.

신장은 척박한 사막 주변 땅에 오아시스도시들이 자리하고 이곳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정주하면서 성과 집락 주거, 종교시설들이 구축되었다. 따라서 그들이 사용한 <건축재료와 구법>은 주변 환경에서 구득이 용이한 것들이었다. 진흙을 틀에 넣어서 말린 벽돌이 가장 많이 사용된 재료이다. 그리고 벽돌을 쌓은 벽면에 진흙으로 발라 마감하였다. 또한 벽돌을 쓰기에 너무 큰 구조물에는 흙이나 진흙, 나뭇가지, 지푸라기, 자갈 등을 다져서 밀도를 높이기 위해 두드려 다지는 향토 기법을 주로 사용하였다.

신장지역 불탑연구의 어려움은 과거의 실증적 유구와 자료가 적다는 것이다. 또한 흙벽돌의 훼손이 심하여 원래의 모습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대당서역기』 이외에도 다양한 고문헌을 통한 비교분석적 연구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로 남아 있다.

참고문헌

1. 현장, 다정 김규현 역, 『대당서역기』, 글로벌콘텐츠, 2013.
2. 현장, 권덕너 역, 『대당서역기』, 서해클래식, 2006.
3. 水谷眞成, 『大唐西域記』, 中國古典文學大系 22, 1983.
4. 『大唐西域記 外』, 이미령 외 옮김, 동국역경원, 1999.
5. 첸윈중 지음, 임홍빈 옮김, 『현장 서유기』, 에버리치 홀딩스, 2010.
6. 송윤미, 『대당서역기의 탑 고사 고찰 : 실존 인물유형의 고사를 중심으로 하여』, 『동서비교문학저널』, 제29호, 한국동서비교문학학회, 2013.
7. 임영애 외 5인, 『유라시아로의 시간여행』, 사계절, 2018.
8. 이주형 외 7인, 『동아시아 구법승과 인도의 불교 유적』, 사회평론, 2009.
9. 이주형, 『인도의 불교미술』, 한국국제교류재단, 2006.
10. 천득염, 『인도 불탑의 의미와 형식』, 심미안, 2013.
11. 范霄鵬, 『新疆古建築』, 中國建築工業出版社, 2015.
12. 유홍준,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중국편 2, 3』, 창비, 2019, 2020.
13. 고미츠 히사오 외, 이평래 역, 『중앙유라시아의 역사』, 소나무, 2005.
14. 르네 그루씨 지음. 김호동 외 옮김, 『유라시아 유목제국사』, 사계절, 1996.
15. 김호동 지음, 『근대 중앙아시아의 혁명과 좌절』, 사계절, 1999.
16. 김호동, 『아틀라스 중앙유라시아사』, 사계절, 2016.
17. 양성민, 덩 홍 외 8인, 『중국민족지 1, 2, 3』, 역자 김영순, 전신자, 고승룡, 한국학술정보, 2015.
18. 민병훈, 『실크로드와 동서문화 교류』, 국립중앙박물관, 실크로드와 둔황, 2010.
19. 霍旭初, 祁小山 編著, 『“絲綢之路” 新疆佛教藝術』, 新疆大學出版社, 2006
20. 范霄鵬, 『新疆古建築』, 中國建築工業出版社, 2015,
21. Yuuka Nakamura, Shigeyuki Okazaki, 『The Spatial Composition of Buddhist Temples in Central Asia, Part 1: The Transformation of Stupas』, Intercultural Understanding, 2016, volume 6.
22. 정승석, 『간추린 불교상식 100문 100답』, 민족사, 1999.
23. 실크로드연구사전, 국립문화재연구소, 2019.

접수(2022. 06. 02)

수정(1차: 2022. 08. 16)

게재확정(2022. 08. 21)